

## 제1회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문학상> 수상자 발표

현대문학사(발행인 김영정)는 5월 1일 제1회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문학상>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 현대문학의 산실 현대문학과 교육출판 미래엔이 청소년의 창의적인 사유와 무한한 상상력을 확립시킬 수 있는 문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현대문학\*미래엔 청소년문학상> 제1회 수상자와 수상작은 임고을의 『녹일 수 있다면』이다. 상금은 2천만 원이며, 수상작은 연내 현대문학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 수상자 임고을

수상작 『녹일 수 있다면』

심사위원 구병모 김민령 이기호 최영희

### 수상자 약력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여대 문창과를 졸업했다. 동화 『닭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고기오』가 있다.



임고을 (사진 ©김찬미)

### 심사평

이 소설은 문학이라는 게 반드시 기술적인 노련함과 탁월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었다. 지금 현실 세계는 빙하가 녹는 중이지만, 그 세계에 사는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 하나가 거대한 빙하나 다름없다. 외기 영하 217도의 세계에서 얼어붙은 인간을 녹여서 살려내는 이야기는 분명 오늘날 만연한 삭막한 마음을 몽근하게 녹여준다. 사람을 살려내는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건 그야말로 미래에 어울리는 선택 아닌가. (……) 만약 당신의 손에 소수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키가 쥐어져 있다면, 필요하고 유용하며 건강한 사람만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취사선택을 할 것인지, 혹은 기준이라는 게 애초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그 묵직한 질문을 청소년 주인공들의 시각에 담아 독자 앞에 던지는 것으로

써 이 소설은 제 몫을 다했다.

-구병모(소설가)

급속 냉동된 사람을 녹여 되살려낼 수 있다면 누구를 살려낼 것인가.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장차 도래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일까. 또한 되살아난 사람이 또 누군가를 녹이고 싶어 한다면 그 욕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녹일 수 있다면』은 에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외양을 띠고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를 치밀하게 보여주지만 청소년 소설로서 품어야 할 진지한 질문들을 놓치지 않는다. (……) 좋은 청소년 소설은 청소년 인물을 장기 판 위의 무력한 말이 아니라 창을 들고 달려가는 돈키호테의 후예들로 그려낸다. 퐁퐁 얼어붙은 세계에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한 소녀들이라니, 청소년 독자들에게 이보다 더 매혹적인 설정이 또 있을까.

-김민령(동화·청소년문학 작가)

흔히 다른 디스토피아 서사는 오직 ‘생존’에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디스토피아가 ‘도구’로서만 작동될 때 그렇다), 이 작품은 얼릴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는 양가적 권한을 온전히 서진·서리 두 10대 자매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전경을 드러냈다. 특히 얼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희망을 품고 녹이는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긴장과 두려움, 안도와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이입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 ‘꿈 내용’보다 ‘꿈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처럼, 이 작품의 ‘녹임/얼림’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은유로 다가왔다. 말하자면 지금 이 얼어버린 세상에서 얼음이 된 존재는 누구인지, 그 중 우리가 ‘튜브’ 안으로 이끌어야 할 존재는 누구인지, 그에 대한 질문이 이 작품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디스토피아가 아닌,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맞다.

-이기호(소설가·광주대 교수)

좋은 소설에는 독자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는 구경꾼으로 두지 않고,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일반 성장소설과 청소년 소설의 차이는 이야기의 현재진행성에 있다. 일반 성장소설은 대개 후일담의 형태를 띠지만 청소년 소설은 충돌과 해체, 수습과 성장의 과정이 현재진행형으로 존재한다. (……) 책을 닫는 순간과 독자와 분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에서 증폭되는 이야기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결과 물음을 던지는 힘이 더 강하고, 그래서 독자들 안에서 이야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녹일 수 있다면』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읽는 내내 『녹일 수 있다면』이라는 작품이 질문을 던진다고 느꼈다. “모두가 얼어버린 세상에서 너에게 몇 사람을 녹일 기회와 능력이 주어진다면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최영희(소설가)

## 수상 소감

어린 시절 글쓰기 대회 상을 휩쓸었다거나 소문난 독서광이었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글을 쓰겠다는 마음 없이 문예창작학과에 있으니 개성 강한 학생, 교수님 들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전과하기로 결심했지만, 전공 필수 수업을 피할 순 없어서 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접한 시의 세계가 좋았다 느낀 이유는 당시 김강태 선생님이 건네준 작은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잘해본 일 없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칭찬을 받아본 일도 없어서 그게 순진하게 기뻐했습니다. 이후 시를, 소설을, 동화를 그리고 청소년 소설을 쓰며 ‘계속 쓰는 게 맞나?’ 하는 막막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확인해준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 그렇다고 고집스럽게 믿으며 오랜 시간 지내왔습니다. 내 길이 아닌 곳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는 기분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좋지 않아 문예창작학과로 떨어진 것이, 그리고 그 시 수업을 들은 일이 정말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스쳐 간 칭찬이 오랜 시간 글쓰기의 동력이 되었으니, 이번 수상은 제게 과분한 격려와 응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 『녹일 수 있다면』은 얼어붙은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녹이며 새롭게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 덕분에 이 이야기가 녹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 잘못 녹였다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임고을(동화·청소년문학 작가)